

통합사례관리 전문가들 '광주다움 통합돌봄' 주목

광주서 '통합돌봄 국제학술대회' 열려 현장 연구 공공·민간돌봄 획기적 변화시킨 혁신 사례 평가

국내의 통합사례관리 전문가들이 한국의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정해 눈길을 끈다.

특히 17년 역사의 국내 유일의 사회서비스 통합 연계 전달체계 연구단체인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는 학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책 실천 현장인 지자체를 찾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는 1일 "지난달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의 연계'를 주제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4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복지와 보건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토대가 된 개념이다.

국제학술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미정 광주시의원, 윤정숙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김광병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홍석호 정주대 교수 등 70여명의 학회 회원, 시라사와 마사카즈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장, 이은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전용호 인천대 교수 등 국내외의 통합사례관리 석학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표 돌봄정책을 연구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자유발표에서는 가



지난달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환영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죽돌봄정년(영 케어러), 노인복지관 죽음 준비(웰다잉)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실천 우수 사례가 발표됐다. 오후에는

미국, 일본, 한국의 대표 돌봄정책과 통합사례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 기초발제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기간에 공공과 민간의 돌봄활동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킨 혁신 사례"라며 "특히 기존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확장한 점에서 대한민국 돌봄정책을 선도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 정책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정책이다.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보편 정책으로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국내외의 전문가, 지자체, 국회, 정부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더 키우고 확장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 1년6개월 동안 1만7천여명의 시민을 지원했다.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올해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전국 67개 정책과 거취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전문가 의견 수렴

도, 대학·일자리 지원기관 등 포럼 개최 정책 방향 논의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목표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24 전남 여성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한숙경·최선국 전남도의원 등 총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여성일자

리 종합계획' 초안을 공유하고 전남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은 2023년 실시한 전남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전남 여성일자리 정책 검토, 대상별 여성 일자리 정책 수요 파악, 전문가 과제발굴 자문 등을 거쳐 수립됐다.

특히 분야별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

기 위해 청년여성, 중장년여성,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농림어업인, 여성창업인 등 대상별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정확성을 높였다.

포럼에서는 전남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최동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가 지점토론을 했다.

토론에선 최선국 전남도의원이 '전남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 김대성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이 '여성일자리 관점에서 본 전남 일자리 정책',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 특성과 정책과제', 박은영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현장에서 본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여성일자리 포럼에서 제시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여성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여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보성에 '전남 한복문화 창작소' 문 열었다

생산·전시·판매·체험 등 융합공간

전남도는 1일 "보성군에 전통을 잇고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한복문화 창작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개소식에는 서형빈 보성군 부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에 다섯 번째 조성지로 선정됐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해 지역 중심 한복문화 활성화와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한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평가를 통해 3년간 10억원이 지원되며 1차년도인 올해 시설을 구축하고 한복문화주간 연계 행사, 초·중·고 한복문화 교육 등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남 한복문화 창작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복의 매력을 알리는데 힘을 기울인다. 지역 한복 디자이너와 장인들이 협력해 한복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펼쳐진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립대, '대학통합추진본부' 출범

목포대와 통합 가속화...소통창구 역할 기대

전남도립대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 가속화, 대학 내외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한 대학통합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통합 추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열린 현판식에는 총장 직무대행인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통합추진 공동위원, 실무위원, 전남도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현판 제막과 함께 간담회, 통합 주요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대학 통합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무기획처장인 김종명 교수를 본부

장으로 한 대학통합추진본부는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신속한 통합 의사 결정을 위한 대내·외 소통창구다. 통합 기본 방향, 실무 현안 조정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실무팀 회의를 수시 개최해 통합 안건 논의 및 의사를 결정하고 대학 통합 관련 공청회, 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합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통합추진본부는 통합 과정에서의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남도립대학교 캠퍼스 대학 발전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장현범 직무대행은 "대학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두 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통합된 대학이 전남지역 고등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경철정,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